

# 최대종 시의회 의장 전격 辭退

## 포천시의회 전문위원 인사 사퇴 요인 최 의장 "의원 통제와 相生 안 돼 사퇴"

포천시의회 최대종 의장은 지난 16일 전격 사퇴서를 제출하고 의장직을 사퇴했다. 최 의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포천 시의회 후반기 의장취임 이후 오늘까지 10개월 8일이 됐다. 그러나 의장취임 이후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 왔고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15일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러 최 의장은 전격 사퇴 배경에 대해 "의회는 하나의 독립된 구성원의 모임체이기 때문에 의장직 수행과 더불어 의원들간의 조화는 어렵다"고 전제 후 "나름대로 의원들과 의회를 훌륭하게 운영하고자 했지만,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사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적인 사퇴배경에 대해 최 의장은 "박찬영 전문위원을 의회 사무

국으로 발령된 것이 발단이 되었지만, 인사권자인 시장이 전 내촌면장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연락을 해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또 "내가 사퇴를 하면서 박찬영 전문위원 보직 변경은 인사권자인 시장이 의장인 본인과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못된 점도 없고 다른 의원들에게 사과할 마음도 없다"고 말하고 "시의원들이 이

전 의회사무국 계장인사에 반발해 합의하는 사태가 있었다"고 설명, 최 의장과 의원들간의 갈등은 취임이후 지속되어 왔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최 의장은 "시의원들은 의장직을 수행하는 민의의 대표자인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하고 "개인적인 성격 탓도 있지만 다른 의원들과 상생하기 어려워 나름대로

많이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장은 "의원들의 인사권 개입은 월권행위로 자문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의회 의원은 지식이나 학력보다 인간 자체가 존엄하고 자기 맡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2면>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손학규 경기도지사 모내기 시연행사

## 탄동2리 친환경농업단지서 농업인 격려

포천시는 지난 16일 관인면 탄동2리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계모내기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지사 외에도 경기도 제2청사와 포천시 및 시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유관기관 및 각급 단체장, 농업관련단체장, 지역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계모내기 시연행사가 열린 탄동2리 마을은 고품질 경기가 생산 및 친환경농업 생산단지로서 손 지사는 기계모내기 시연 후 승용이앙기 1대를 이 마을에 기증했다. 손 지사는 이어 고품질 경기가 생산에 힘쓰는 지역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당면 농정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 폐아스콘 방치 행정기관 無事安逸

## 양문리 농로포장공사 후 200여톤 도로변 야적



양문4리 농로포장공사 후 2년 이상 방치되어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현황파악조치도 못하고 있는 현상.

양문4리 농로포장공사 후 발생한 폐아스콘 200여톤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으나 관련기관은 이행조치는커녕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영중면과 주민들에 따르면 영중면 양문4리에 조성되고 있는 체육공원 맞은편 도로변에 2003년 농

로포장 공사를 하고 불법으로 야적한 폐기물 200여톤이 방치되고 있으나 영중면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영중면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업체가 무슨 사업을 했는지 물어봐야 한

다"고 말하고, "사업시행 업체가 확인 되었음에도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시행업체에 확인 전화를 하는 등 뒤늦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확인 결과 도로변에 방치된 폐아스콘은 2003년 시행한 양문4리 농로포장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나타났다. 이 농로포장공사는 포천시 예산 2천 300만원으로 폭 4m, 길이 170m를 재시공한 사업으로 2003년10월 영중면 소재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월 준공했다. 양문리 주민 이모씨는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당연히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준공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폐기를 처리하는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처럼 오래 동안 방치된 것은 행정기관의 무사안일에서 발생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영중면 관계자는 "준공검사 당시 폐기물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를 방문한 중국 라이우시 대표단 일행이 포천시 청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 중국 라이우市 대표단 포천시 방문

## 포천시 기업체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중국 산둥성(山東省) 라이우시(萊蕪市) 필옥해(畢玉海) 부시장과 강송지(康頌池) 대외무역경제합작국장, 지역 기업인 등, 21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포천시를 방문했다. 포천시와 우호교류중인 라이우시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포천시 관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7일 포천 산정호수 한화리조트 백운홀에서는 지역산업 및 기업유치 관련 포천시 공무원들과 포천상공회의소 관계자, 그리고 포천관내 40여 주요 기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라이우시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필옥해 부시장은 중국 산둥성은 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과

기반시설, 시장환경 등이 잘 갖춰져 있다며 산동 태산철강공업단지 등에 포천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라이우시 대표단은 포천 상공회의소와 웅진코웨이개발(주)를 방문했으며 방한 사흘째인 18일에도 두팀으로 나누어 포천 관내 8개 업체를 방문했다. 또 19일에는 허브아일랜드와 대진대학교, 분재농원 등을 시찰하고 포천반월아트홀에서 민속공연을 관람한 뒤 20일 출국한다. 한편, 박윤국 포천시장과 필옥해 라이우시 부시장은 방한 첫날 환영 접견에서 양 지역이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우호교류를 증진해 상호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 ▶ 포천시의회 최대종 의장 사퇴전말 2면
- ▶ 포천중문의과대학 포천시발전에 기여 13면
- ▶ 포천시·경기도체육대회 5연패 16면



## 포천사랑은 '포천시민대중' 제작사업 참여로부터!

**역사적인 대중제작에 시민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중(鐘)은 예로부터 나라의 평안을 빌며 백성들의 소원을 기원하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우리 고장이 "마홀"이란 지명을 얻은지, 1,500여년만에 뜻 깊은 포천시(抱川市)로 승격됨에 따라 이를 영원히 기념하고 시민의 화합과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하여 15만 시민이 스스로 참가하여, 1,000년후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만들어 전하고자 합니다.

**"다같이 참여하여 희망찬 포천시의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

**포천시민대중제작추진위원회**  
위원장 **최종규**

### 사업 개요

- ▶ 추진기간 : 2005. 2~ 2005. 12. (예정)
- ▶ 설치장소 : 군내면 구음리 청성공원 (예정)
- ▶ 주 관 : 포천시민대중 제작 추진위원회
- ▶ 참여대상 : 포천시민 및 출향인사
- ▶ 종 및 종각
  - 종 : 15톤 (시승격 당시 15만 시민을 상징)
  - 종각 : 21평 (우리나라 전통종각 형태로 21세기를 지향하는 포천시의 미래상징)

### 기부금 기부방법

- ▶ 기부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과 함께 납입
- ※한국문예진흥원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 ▶ 기부자 명단은 종각에 영구 보존되며 책으로 간행하여 우송해 드릴 계획입니다.
- ▶ 기부금 납입 통장
  - 농 협 : 175-12-220873 / 최종규(포천시대회)
  - 우 체 국 : 100552-01-004052 / (포천시대회)
  - 국민은행 : 219401-04-058738 / 최종규(포천시대회)

### < 중 명 공 모 >

- 아래 설문에 참가하여 채택된 분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모형소중을 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참가요령 설문서를 작성한 후 접선을 오려내 우편엽서에 붙여 6월 10일 까지 추진위원회로 보내세요.

1. 우리고장의 종이름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름은?
  - 가. 포천시민대중
  - 나. 포천시민의 종
  - 다. 청성대중
  - 라. 이외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종이름 ( )
2. 종각(鐘閣)의 이름은?
  - 가. 청성각(靑城閣)
  - 나. 반월각(伴月閣)
  - 다. 견성각(堅城閣)
  - 라. 마홀각(馬忽閣)

**"포천시민대중제작은 비용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만드는 투자입니다!"**